

# 수지·임윤아 CF 전성시대... 전지현 시대 가나

배우 전지현 주지훈 등 '킹덤' 주역을 캐스팅,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tvN 드라마 '지리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초반 성적을 내면서 흥행과 함께 주식과 CF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지리산은 제 2의 '오징어 게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방영 전부터 예능 프로그램에 김은희 작가가 출연하면서 일찌감치 2021년 하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첫 방송을 탄 뒤 드라마의 어색한 컴퓨터그래픽(CG) 효과와 과도한 PPL(기업간접광고) 등이 도마에 올랐다. 9.1%로 시작했던 시청률은 3회에 7.9%까지 떨어졌다. 4회에는 반등해 9.4%에 이르기도 했지만 주말에 드라마가 방영된 후 주식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떨어지는 현상이 2주째 계속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작사인 에이스토리(241840)의 주가는 5일(금) 3만1250원으로 드라마가 방영되기 전인 지난 22일 4만9550원보다 36.9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4723억원에서 2979억원으로 1744억원이 낮아졌다. 공모특례도 에이스토리는 지리산이 방영된 직후마다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공통 제작에 나선 스튜디오드래곤(253450)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9만4500원에서 5일 8만8300원으로 6.56% 빠졌다.

지리산 제작을 후원한 네과의 아웃도어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나디아퍼시픽의 모회사인 태평양물산(007980)도 3345원에서 2435원으로 27.20%의 주가가 빠지면서 시가총액도 117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현재 CF 모델 업계의 권은 수지다. 수지가 신거나 임으면 모두 품절이다. 임윤아도 수지와 막상막하 1, 2위 자리를 다투고 있다. 왼쪽부터 수지, 임윤아, 전지현.

## '지리산' 시청률 추락... 전지현만 믿었던 네파 애간장

블랙버스터로 기대를 모았던 지리산의 추락으로 관련 업계에 도미노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시청자의 지적이 빈번한 부분은 PPL이다. 줄거리의 개연성이 이어지는 PPL은 흐름을 끊는 동시에 제품에 대한 신뢰도 떨어트리고 있다.

프로 산악인에 버금가는 레인저들이 깨끗한 '네파' 등산복을 매일 갈아입다시피 하는 모습은 공감을 사기 어렵다는 게 일부 시청자의 지적이다. 관련업계에서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 입을 모은다. 드라마 지리산은 여자주인공이 네과의 모

델 전지현이고 네파가 단순히 협찬하는 수준이 아닌 제작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작지원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만큼 네과는 드라마 지리산 자사의 마케팅에 활용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자사 온라인몰에 '지리산 전용몰'을 만들고 백화점 팝업스토어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다.

지리산 전용몰의 경우 '드라마 지리산에서 노출됐던 제품'이라며 회차별로 나오는 제품들을 진열하고 있다. 매회 패션쇼를 방불케 할 정도로 새로운 등산복과 아

이템-장비가 모델 전지현을 빌어 카탈로그에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마케팅 전문가는 지나친 간접광고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것이 지나치면 부작용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삼성 애플 신화를 이끈 전지현 시대는 간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전지현은 2014년부터 네과의 얼굴로 8년째 활동하고 있다.

현재 CF 모델 업계의 권은 수지다. 수지가 신거나 임으면 모두 품절이다. 임윤아도 수지와 막상막하 1, 2위 자리를 다투고 있다. 수수하고 은근한 매력을 갖고 있는 신민아도 CF 모델 포섭 순위 최상위급이다.

CF 광고업계에서는 대세를 따라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대세를 무시하면 실패만 따를 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네과의 최대주주는 MBK파트너스(MBK)다. 2013년 지분 94.20%를 9970억원에 사들였다. 인수 뒤 시장이 급속하게 위축되면서 한 때 1조원 매출을 넘보던 네과의 지난해 매출액은 280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작년 영업이익은 67억원으로 전년 대비 76.5%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커녕 순손실 규모만 1167억원에 이른다.

전지현의 이름값에 올인한 네과, 전지현을 여주인공으로 캐스팅한 블랙버스터급 드라마 지리산의 시큰둥한 반응으로 더 큰 위기에 몰리는 것은 아닌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훈 기자

## 오늘의 언박싱



패사 소파 전문매장 '패사'가 2021 가을-겨울 시즌을 맞아 최신 프리미엄 기능성 아쿠아텍스 패브릭 소파를 출시했다.

## 균형·얼룩 걱정 끝

패사, 기능성 소파 출시 론칭기념 최대 35% 할인

소파 전문매장 '패사'가 2021 가을-겨울 시즌을 맞아 최신 프리미엄 기능성 아쿠아텍스 패브릭 소파를 출시, 대형 거실을 위한 카우치형 코너 소파 제품을 선보였다.

신제품 론칭을 기념해 3.5~8인용 등 일부 제품에 한해 기본할인 5%와 추가 할인 최대 30%까지 적용하며 이달 말까지 전시상품 추천 할인행사도 이어간다.

인천가구단지 '패사' 소파가 야심차게 선보이는 이번 신제품은 가구 제작 40년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새로운 프리미엄 인팔라 조야 소파다.

이 소파는 기능성 패브릭 소파로 더블 플로킹(실)이 교차되는 형식의 일반 직조 방식을 벗어나 섬유를 수직으로 세워 만드는 직조 방법을 2배로 적용) 공법을 적용했다.

스크래치와 얼룩에 강하며 스웨이드 같은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이다.

일자형, 코너형 등 원하는 공간에 맞춰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고 팔걸이 유무를 선택할 수 있다.

이재훈 기자

# G마켓·옥션·G9, 빅스마일데이 관심 집중

## 200여개 브랜드와 협업, 할인·쿠폰 등 흥행몰이 예고

G마켓과 옥션·G9가 12일까지 연중 최대 쇼핑 축제 '빅스마일데이'를 연다. 빅스마일데이는 메가 브랜드와 파트너십으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흥행몰이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고객에게 다양한 특전을 제공한다. 특히 삼성전자·타미힐피커·LG생활건강 등 3개의 메가 브랜드 포함, 다양한 빅브랜드사와 강력한 협업으로 혜택을 최대한 강화한 것이 큰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디지털기기와 가전 종류에

따라 G마켓에서는 최대 28만 8220원까지 할인되는 중복 할인쿠폰 17종, 옥션에서는 최대 20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16종의 중복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노트북과 PC는 물론, 비스포크 등 삼성

전자 인기 가전과 갤럭시참자급제폰·갤럭시 버즈 등 모든 삼성전자 제품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타미힐피커는 21년 인기 가을 겨울 컬렉션을 선보인다. 빅스마일데이를 통해 스마

일클럽 대상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 타미힐피커와 타미진스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 대상 혜택도 키웠다.

8일 빅스마일 라이브쇼에서는 캐주얼 아메리칸 데님 브랜드 타미진스의 인기 컬렉션을 소개한다. 타미진스 티셔츠와 양말을 방송 중에만 증명하는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재훈 기자



일양발효 녹용홍삼보 2개월(70ml x 60포) : 79,000원/3개월(70ml x 90포) : 108,000원 (주)헤미리TV네트워크 상담문의 : 080-315-5000